

하나됨과 나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제직연수회가 다음 주일(22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22일) 오후에 있습니다.
- 세례문답과 입교 준비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36 - 37호

2019년 9월 15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한가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창윤 집사 · 양일자 선생 가정 (아버지 기일)
 차태옥 사모 (생일 감사)
 김성현 청년 (생일 감사)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방교회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원로목사/ 정태일 담임목사/ 최성필
 부 목 사/ 이원영 권혁신 이동기 협동목사/ 박광희
 장 로/ 홍삼성 김영식 홍정길 안상호 은퇴장로/ 이용신
 전 도 사/ 해 은 권재만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이어진
 선 교 사/ 조남희 김하진 노효중 김희정 윤연섭 이양숙 최장수 허윤정 임채정 손희정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8월의 한가운데 날로 가을 저녁,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으로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다.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에서 오곡이 익는 계절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날이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송편과 함께 토란국을 먹기도 한다. 또 추석에는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하는데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씨름 등의 놀이를 하는데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명절이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귀성 행렬이 시작된다. 객지에 사는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고향을 찾는 것인데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잡아 생활하면서 불편한 교통시설로 명절에만 고향을 찾아 이동하던 것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보기 위해 떠났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 농사가 기반이기 때문에 추수의 계절에 모여서 사람과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다. 햇곡식과 풍부한 먹을 거리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만들고 고향에서 어릴 적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만나고 친척들과 인사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어릴 적부터 이런 명절을 기다려왔던 것 같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기름진 음식과 과일 등 먹거리가 풍성했었다. 평소에는 적은 수의 가족끼리만 있었는데 이때는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기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후유증으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했었고 명절 후의 가족 친척과 재밌게 놀았던 그리움과 주방이나 가을걸이로 인한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다.

추수와 관련된 성경의 절기는 수장절이 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로 본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켰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면서 출애굽 후 광야생활동안 지키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서 장막절, 초막절로 불리기도 한다.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① 7일 동안 광야에 초막을 짓고 기거한다. ②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갖는다. ③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추수 감사제의 성격이 강하다.[네이버 지식백과] 수장절 [收藏節, feast of ingathering]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생활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한 양식을 공급받았다. '이것이 무엇이나?' 라는 뜻을 가진 흰 서리 같고 진주모양 같았으며 밤 이슬처럼 내리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고 출애굽 2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광야생활하는 동안 매일 매일 내렸으며 광야생활을 모두 마치고 요단 간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친 "만나"가 그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먹고 사는 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큰 문제였었다. 아직도 어느 한 곳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먹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때가 추석, 수장절, 광야생활이었다. 이때 드러나 보이는 현상은 '감사'이다. 우리가 먹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주위를 둘러 볼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 함께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이야기 하며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지금은 분명 예전보다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윤택해졌음에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풍요롭지 못하고, 더 즐겁게 놀지 못하고, 더 여유롭지 못하게 느껴서 인지도 모르겠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다.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한주간 말씀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나서 1:1-16

제목 :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

인도 : 최성필 목사

찬송 : 539 526 516

1. 내용관찰(What)

1-3(주님의 명령과 요나의 도피)

4-10(요나의 잘못이 드러나다)

11-16(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님의 낫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1-3), 잘못이 드러나는 요나(4-10),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11-16)입니다.

2. 내용의 의미(Why)

- 1) 선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 2) 선교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 3)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3. 의미의 적용(How)

전체적용) 선교적인 삶을 살자.

<구체적인 적용> 세상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자.

신앙인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의 눈(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의 LG

엘지가 새끼를 낳았다. 얼룩이 세 마리와 흰야옹이 세 마리가 눈도 못 뜬채 어미젖을 물고 털뭉치처럼 엉켜있다. 새끼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다.

엘지는 올해 새로 옮긴 삼성중학교에서 함께 살고 있는 흰색 길냥이 이름이다. 삼성중학교 하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 한 학교처럼 보이지만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길에 위치한 전교생이 35명인 초 소규모 학교이다. 엘지는 작년에 병들고 굶주린 길냥이로 학교에 나타났다고 한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성껏 돌봐줘서 건강해졌고 관사에서 크는 흰강아지 '삼성이'와 한 밥그릇에서 먹으며 남매처럼 지냈다. 그런데 올해 교장선생님이 퇴임하시면서 '삼성이'를 데려가셨고 엘지만 혼자 남게 되었다. 외로운 엘지에게 순댓국집 백구 '순대'가 가끔씩 놀러 왔고 길냥이 야옹이가 왔다 갔다 하더니 엘지가 새끼를 갖게 된 것이다. 엘지의 출산준비위원회가 꾸러졌다. 교무부장은 학교건물 뒤편에 있는 관사 1층 오픈 창고에 엘지 출산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엘지 몸보신을 위해 교감선생님은 통조림을 사다 먹이셨다. 오랜 바람 끝에 엘지가 드디어 여섯 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이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들을 보고 싶어 들여다보는 데 새끼들만 고물 고물 자고 있었다. 엘지가 어디 갔지? 두리번 거리 던 나는 깜짝 놀랐다. 저 쪽에서 엘지가 눈에 힘을 가득 준 채 부리부리한 매서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엘지의 기운에 놀란 나는 얼른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새끼에게서 물러나야했다.

신북면민 행사가 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다음날 엘지와 새끼들이 모두 사라졌다. 학교 뒤편에 있는 한옥집 뒷마루 밑에서 모두 찾았다. 아마 큰 앵프 소리 때문에 놀란 엘지는 여섯 마리나 되는 새끼들의 목덜미를 물고 뒷마루 밑으로 옮겼으리라. 급식에서 남은 고기를 엘지 밥그릇에 넣어주었더니 엘지가 허겁지겁 맛나게 먹는다. 다른 곳에 있던 새끼들이 갑자기 표범처럼 뛰어간다. 엘지가 고기를 입에 가득 물고 새끼들을 주고자 나타난 것이다. 새끼들은 어미가 뱉어준 고기를 맛나게 먹고는 남은 고기를 먹기 위해 어미를 따라 밥그릇으로 간다.

나는 어릴 적 미친개에게 쫓긴 기억으로 인해 동물과 교감을 나뉘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엘지의 감동적인 모성은 나에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가르쳐주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엘지는 누워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앞다리로는 다른 녀석의 목덜미를 썬안고 핏줄을 핥아준다. 이제 새끼들도 어미만큼이나 컸지만 아직도 야속하게 어미젖을 먹고 있다. 젖 먹이느라 헬썩해져 가는 엘지가 안쓰럽다.

더기쁨사랑방 이영숙 선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최성필목사
설교자 : 최성필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예레미야서 29 : 11	인도자
* 예배의 찬송	32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이사야서 44 : 22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79	다함께
고백의 찬송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야고보서 5 : 7-11	설교자
성가대 찬양	주님 다시 오실때까지 디아코니아사랑방	
설교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됩니다" 최성필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36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은혜로다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진용용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일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서는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의 종교적인 핍박과 로마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팎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할 이유는 인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1절에서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고백합니다<11>.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유익임을 강조합니다<약1:2-4, 롬5:3-4>.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삶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인내는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인내는 복되고 유익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인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갈5:22-23>.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로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성필 목사 / 기도: 장지영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풍성한 한가위를 앞에 두고 꾸러기는 매년 맛있는 송편을 빚습니다. 빚는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송편을 요즘 많이 사먹는 게 추세인데 꾸러기는 매년 정성을 다해 송편을 빚습니다. 아가지기한 작은 손으로 얼마나 아주지게 일하는지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송편 빚는데 꾸러기는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송편 짤 때 깔 솔잎을 다듬었습니다. 싱싱한 솔잎을 따서 끝에 있는 겹질을 떼고, 깨끗한 물에 씻어줍니다. 벤치에서 20~30분 동안 솔잎을 손질 하는데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앉아서 해낸 꾸러기들이 참 대견합니다.

화요일은 대망에 송편을 빚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불러서 빵아온 쌀가루를 보여주고, 뜨거운 물을 부우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줬습니다. 만져보고, 먹어보고 생생하게 변화하는 모습에 신기해하고, 재밌어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로 송편을 빚었는데 어머님들이 준비해주신 콩, 깨, 밤, 견포도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다 다르고, 소도 다 달랐지만 집중해서 만든 송편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항상 꾸러기는 음식을 만들면 다 같이 나눠먹습니다. 목사님댁, 어린이학교, 목공소, 어머님들, 사무실 등 조금씩 송편을 담아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우산 쓰고 찾아가 인사드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할 때 모든 분들이 기쁘게 반겨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송편을 드리고 정말 좋아하고, 뿌듯해 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아이들이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란 걸 아이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받은 모든 분들도 그렇고, 만든 꾸러기들도 그렇고 송편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송편을 먹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랑하는 7살 인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꾸러기 모두가 마음을 모아 카드도 써주고, 인서도 꾸러기 모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와서 나눠줬습니다. 마음을 많이 주는 만큼 헤어짐이 항상 힘듭니다.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서와 함께하시기에 마음 놓고 보내줍니다. 인서가 꾸러기를 기억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학교

하늘은 밝고 햇빛은 짙은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늘 아이들의 배움과 놀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학교는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자유시간을 외치는 아이들과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과의 사이는 시끌시끌 했습니다. 매년 아이들은 자유시간을 외치지만 아주 창의적이고 다른 주제로 자유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을 주제로 아이들이 저에게 자유시간을 외쳤지만 단칼에 안대를 외치고 수업을 하지만서도 아이들의 수업을 조금 당겨서 마쳐줍니다.

이번 주 어린이학교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직후라 그런지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먹는 것을 조심해라, 음식을 먹기 전엔 꼭 손을 씻어라 등등 강조를 많이 하지만 한번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청결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혼이 나더라도 꼭 깨끗이 손을 씻는 어린이학교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많이 흥분하고 시골에도 갈텐데, 모든 가정들이 조심히 내려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배 아픈 아이 없이 월요일날 웃으며 등교하길 기도합니다.

늘 한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귀한 추석 잘보내세요. < 교사 : 김선휘 >

멋쟁이학교

이번 주에는 모든 멋쟁이들과 선생님들이 가정학습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나름대로 휴식하기도 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혈육의 정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는 시설들을 재정비하거나 보충하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2학기를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힘차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멋쟁이들을 섬길 학생회가 드디어 결성 되었습니다. 회장=우림, 부회장=석지연, 총무=한승연, 회계=김의인, 서기=이소정 멋쟁이입니다. 이들과 함께할 학교 생활이 무척 아름답고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멋쟁이학교를 위해 나설 학생회와 멋쟁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공동체 운동의 의미

올해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주최 멤버십 한마당잔치가 사랑방공동체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50여개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의미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등 하나님나라를 향한 여러 모양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공동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가는 방향은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막막하기만 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한국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역사가 30여년정도 이기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가 현실입니다. 각 공동체들이 공동체로서 안정화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약 200여명이 참석하는 멤버십 한마당 잔치를 수용할 공간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방공동체가 감당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을 넘어서 한마당잔치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다양성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걸어갔던 분들의 진솔한 고백, 각 공동체의 고유한 사역과 특성들, 어려운 문제의 공감 등을 통해서 장정도 배우고 해법도 찾고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고 서로 알아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제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향한 공동체의 발걸음에는 무엇보다도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을 나누고 마음을 공유하는 교제를 통해서 여러 모양의 위로와 격려가 새로운 힘이 되었을 것이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공동체운동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절감하는 잔치였습니다.

사랑방공동체는 한국공동체운동에 초기부터 참여해왔고 이제까지, 이번에도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인 개혁과 갱신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또 우리도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사랑방공동체의 마음을 다해서 돕는 손길에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주요 정오기도회>

말씀 : 요한복음 6장 60절-66절

인도 : 공화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필리핀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필리핀정부와 MILF간 50년간 계속된 총동로 15만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의 길을 약속한 필리핀 정부와 MILF가 서로에게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위한 기도>

2018년 하반기부터 가나안농군학교가 '흙(농장)을 기반한 자립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을 한다'라는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추석 명절을 맞아 먼 곳으로 이동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명절에도 타향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로운 노동자들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주는 한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도 원근 각처로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번 연휴는 주일을 앞두고 연휴가 며칠되지 않아서 오가는 길이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가위 대명절에는 보름달이 정말 크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음식도 함께 나눕니다. 한가위는 추수의 계절 가을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과일도 음식도 풍성합니다.

토요일에는 디아코니아 사랑방이 지킴이로 지켰습니다. 교회 이곳 저곳을 정리하고 예배 준비를 하며, 정돈되고 깨끗해지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도 한껏 가벼워집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힘차게 지내기를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정재훈 전도사>